

'90년 통일운동의 의의

I. 들어가며

88년부터 본격화된 통일운동의 흐름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민족대결의 의식을 흔들며 깨워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루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바로알기운동이나 자주적 남북교류운동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통일운동의 물꼬는 남북청년학생회담으로, 공동올림픽 개최로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남북청년학생회담 성사부는 민족의 그릇된 반감, 반목이해를 풀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루는 전 민족적 합의를 이루어 내게 하였다.

II. 평화추진운동의 통일논의 진전

89년에 문익환 목사의 방북과 임수경 전대표의 평양출전 참가는 90년대 통일의 희망을 한층 밝게 했다.

88, 89년 여타의 통일운동의 성과는 현직권력세력의 통일정책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었으며 통일의 장애물이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상태와 국가보안법임을 뚜렷이 부각시켰다. 또한 관료적 통일운동의 오류를 극복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통일운동으로

승화시킨 데 그 의미가 한층 더 중요하다. 89년의 평양출전과 임수경대표의 출전 참가는 비록 완벽한 전민족적 축전이 되지는 못하였으나 남북의 청년학생이 참가하였고 민족의 통일열망을 세계에 알린 것에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현직권력세력은 민족대결의 원칙에 입각한 일대

이러한 와중에도 통일운동의 원할한 성과와 미비함을 가져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은 통일운동을 안정적으로 벌여나갈 조직적 토대를 충분히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88년 당시 각 대학마다 결성된 조국통일 특별위원회(이하: 조통특위)가 처음 통일 운동의 조직적 대오를 결성한 이후, 89년 평양출전준비위원회 등의 통일운동 조직의 발전과정에서 조통특위의 자생적이고 튼튼한 대오를 계속하지 못하고 행사준비적인 성격

90년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III. 90년대 통일운동의 과제

이러한 평가들을 뒤로하고 90년대 본격적인 통일운동의 과제는 무엇인가. 우선 90년도 올해의 통일운동의 흐름을 살펴보면 청년학생 1천개학과 동시 방북 교류추진만이 먼저 떠오른다.

80년대의 운동성과를 계승하여 민족적 차원에서 남북교류의 장구한 전통, 전민족의 통일 의지를 기반으로 통일운동의 새장을 열 가능성이 보인다.

되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자유왕래 전면개방을 위한 노력은 조국 통일운동에서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자주적 실천을 매개로 양적으로 확대하고, 자주통일운동을 직접, 내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된다.

분단과 군사정치체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운동의 전략적 목표인 자주민주통일을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 궁극적인 과제의 하나를 실현하기 위한 시도이다.

또한 통일인사처와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은 현직권력세력의 북방

소와 미군, 핵무기 철수는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민족자주권을 되찾는 원칙하에서 남북간의 대결을 종식할 뿐 아니라 급속하게 통일로 나아가는 조건을 마련하는 데 있다.

아직도 전쟁의 공포와 대결에 의한 평화의 유지는 냉전적 사고가 상당히 잔존하고 있는만큼 군사적 대치의 해소와 미군철수 투쟁은 이와 관련된 민족의 생존권적, 경제적 요구에서 출발하여 상생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교차승인, 교차점층, 유엔남북

이것은 지난 시기 외세와 독재정권이 인위적으로 조작한 반공이데올로기와 군사적 적대관계의 남북중간의 심각한 이질성을 증대시켰고, 이로인한 민족분열의 심화와 대결의식의 조장으로 한반도 전체에 걸쳐 전면적 자주성의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현실의 장벽이 조국통일투쟁에 의해 붕괴되어 나가면서, 새롭게 전민족적 단결에 입각하여 남북의 통일적 발전과 해방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한 힘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국통일의 최대장애가 되고있고 반미 자주화의 핵심적 내용인

야 통일이 가능하지만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주화는 완성될 수 없다.

IV. 나오며

최근 현직권력세력은 그동안 남북상호간의 초교류급 당국자회담, 국회회담, 북경아시안게임 단일팀 파견을 위한 체육회담, 적십자회담을 공전시킨채 한발 더 나아가 남북정상회담을 역으로 제기하여 통일에 보다 획기적 진전을 이룩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것은 향후 2~3년 이내에 미국과 집권세력이 직면할 전민족적 위기에 대비하여 미리 통일논의에 관한 주권을 선점하기 위한 가시적 행위를 갖는다. 미국과 현직권력세력은 통일문제에 적극적인 의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민족적·민중적 통일운동을 억압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함간의 오해, 즉 집권세력의 통일운동의 합법적공간이 확대되리라는 낙관적 기대는 글썽이며 더욱더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통일운동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다.

< 손영희 기자 >

반외세 자주성 획득 분단극복의 전제조건

표의 방북활동을 '북한추진'이라 매도하였다.

그들에게 남북대결이 아닌 모든 노선이 북한의 노선으로 보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평화 협정체결,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철수, 연방제도의 주장이 북한과 비슷해졌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입대표는 주체적이고 당당한 활동을 통해 이와 같은 주장은 북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거나 추종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한국민중의 절실한 이해와 요구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바로 관료적 통일관행이 그 단적인 증거라 할 수 있겠다.

으로 형식적 건설에 급급한 오류를 남긴 것이다.

물론 각 대학마다의 조직화 방법과 형태가 그 특수성으로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조직적 토대를 확보해야만 민족해방과 조국통일의

평창투쟁, '조통특위'의 대오 계승 못한 오류 남겨 통일에 대한 낙관적 기대보다 현실적 실천 시급

전면개방과 자유왕래의 대전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전단계로 전대협차원에서 진행되는 1천개학과 동시 방북교류 추진은 1천만 서명운동, UN단독가입결사반대 등을 중심으로 통일의 주체인 청년학생들과 교수, 학부모까지 그 주체로 세워 조국통일의 초석이

정책의 허구성과 남북관계 접근에 대한 모순성을 극복하려는 투쟁으로 자리매김 될 것이다.

북한바로알기운동과 비핵화와 긴장완화투쟁등 진보적 교류와 통일을 위한 평화적교류도 이와 병행하여 실시할 것이다.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상태 해

한국을 국제적으로 합법화하기 위한 기도는 90년대에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반민족적 기반성을 폭로하고 올바른 통일로 이르는 길에 올바른 서기 위해 확고한 민족적 연대감을 가지며 실천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문제를 대중적으로 인식시키는 것은 반외세자주화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민족이 분열되어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민주화운동의 발전을 통일운동과 결합하지 못할 때 취하고 불완전한 수밖에 없으며 자주화가 진전되어

지금까지는 89년 전체 자주통일운동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근거하여 계획을 도출해 내야 함에도 짧은 기간과 미숙한 능력으로 구체적이고 실체적 내용성에 충실하지 못한 점도 있었다. 이는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의 수렴으로 올바른 축을 견인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

IV. 나오며

지금까지 사학과와 북한학술답사의 개괄적인 내용을 서술하였다. 되살아 보건대 사학과와 북한학술답사의 성과가 이과같이 커다란 타격을 주지 않았던 주요 동력은 필시 학우들의 서로 간의 그리고, 학내외에 대한 굳은 신뢰와 방북의 의욕적 추진, 자주통일 조국건설의 확고한 신념에 근거한 것이라 본다. 토대가 되었든 신뢰와 신념은 자칫 관성적이고 방기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장·단기 통일운동의 구도를 살펴볼때, 가장 관여적인 청년학도의 무기라고 생각되어진다. 구체적인 단위와 실정에 근거하여 과학적인 노력을 보였다는 점은 다행인 통일운동의 결과는 영원토록 표현될 수 없으며 또한 자주통일 조국건설의 대의는 결코 일부에게만 부여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일 것이다.

과 끝은 애국의 단심으로 통일조국의 목 마름으로 통탄의 시대를 극복하고자 최선의 몸짓을 보여주고 있는 청년학도들에게 이 시금 시대와 운명의 주인으로 외침이 아닌 온 몸으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하여 분단적벽 제거와 대 규모 방북투쟁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

강요성

< 사학 >

현실로 다가오는 통일의 함성



88년 6·10남북학생회담, 89년 평양출전 참가투쟁 등으로 이어져 오는 통일의 열기가 금년에는 전대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1천개학과 동시방북추진으로 더해 가고 있다. 이에 본고는 그동안 있었던 통일운동의 성과와 90년 통일운동을 전망함과 동시에 1천개학과 동시방북추진의 가장 포괄적 사례로 꼽히고 있는 본교 사학과와 방북추진 진행상황을 점검해 보고자한다. < 편집자 >

사학과 방북추진 상황점검

I. 들어가며

서러움과 분노의 저항으로 진한 투쟁을 여세게 감행해 왔던 청년학도는 일제 강점기의 오욕에서 미제와 일제강점기의 테러통치에 이르고 있는 통탄의 역사를 극복하고자 지칠 줄 모르는 헌신 행군을 계속해 오고있다.

기필코, 민족의 모든 고통과 불행의 근원인 조국의 분단을 불사르고 참다운 새 세상을 맞이하고자 온몸으로 민족 일치의의 노력을 경주해 왔던 사학과의 북한학술답사 개척사업 추진은 이러한 민족의 통일지지를 구체적으로 담아 내었던 노력으로 남한민중 모두의 수많은 지지와 찬사를 받았다. 이는 백만청년학도뿐만 아니라 진정한 통일을 염원하는 4천만 국민 모두의 자량이 아닐 수 없다.

II. 배경과 상황

88년의 자란한 청년학도의 기개는 반통일적 정권의 특성상 되돌릴 수 없는 오류를 겪을 수밖에 없는 기민적이나마 7.7 사건선언을 받아내고 조국통일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자주적교류투쟁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통일을 열망

하는 4천만 국민은 선연적이고 일회적인 의미에서 지속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과학적 투쟁을 애타게 감수하였고, 89년 문익환목사와 임수경대표에 이르는 장대한 행군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에 사학과에서는 기술 단위의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에 입각하여 편협한 학술활동의 극복과 통일적 역사관 확립으로 남한 전

무를 담당할 주체를 발굴해 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봉조사와 작업과 북한의 고구려사에 관한 유물·유적 조사와 예비세미나 자료를 수집·목록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속에서 자연스럽게 북한 학술답사 개척사업의 의의성을 되새

최선의 노력을 보인 시기이다. 각계, 각층의 연대사업과 병행하여 주변 정치·정세를 분석해내고, 지속적으로 준비해 왔던 학회적 노력을 강화해 나감, 정부와의 긴박한 접촉들을 무수히 치루어 왔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정부에서도 대응하기 바란 완벽

폐기선언과 투쟁을 펼쳐낸 것이, 아니면 학우들의 요구에 상응한 새로운 정책들 이후 힘있는 사업진행을 위하여 차기로의 전환을 시도할 것인가 다소 논란을 벌였으며, 후자를 결정하였다. 대북제의 과점시, 위기의식을 느낀 정권은 가중스러우리 만큼

으며, 사업의 수위가 드높아지고 그 폭이 확장되면서 더욱 어려워졌다.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선배들의 기부형태의 지원금 수급과 준비위원의 개인적 지원이 모두였다.

또한 대 정부·접촉 및 본 사업

고구려 문화권 답사등 학술적 교류로 10월초 방북 예정 전대협의 '1천개학과 방북투쟁'에 모범적 사례 창출

제 학술연구 활동의 질적향상을 꾀하고, 더 나아가 구체적 단위 실정에 근거한 과학적 통일운동의 성숙을 목적으로 소박한 역사학도의 소망을 펼쳐 내었다 하였다. 일정별로 추진하였던 준비사업 및 의의성을 개략적으로 살펴 보면 크게 세가지 단계로 나누어 진행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첫번째 단계는 북한 학술답사 및 김일성 종합대학 조선 역사학과 학우들과 공동으로 진행하게 될 학술세미나의 의의성을 학우들과 공유해 나가며, 앞으로의 계획 및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전문적으로 통일을 위하여

겨 나갔다. 두번째 단계는 본 추진사업이 일정정도 과 학우들속에서 공유되고, 상응하여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을때 학원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이 노골화되었다.

이에 다기다양한 전술계획을 수립해 내고 과 학생회 사수와 학술자료 및 내용을 충실히 준비하는 단계였다. 마지막으로 89년 2월부터 계획되고, 꾸준히 준비해 왔던 본 정부와의 접촉과정에서 기존의 대중적 공유와 단결된 힘으로 각종 공세와 탄압을 극복해 내고, 본 사업의 실효를 위하여

한 준비와 체계적인 전술구사로 북한 주민을 접촉할 수 있는 승인을 장려해 내고 내용과 형식상 미약하나마 대북제까지 시도해낸 단계이기도 하다.

당시, 내용이나 형식에서 방북절차 및 지침에 완벽을 기하는 준비를 함에도 통일을 오도하려는 정부는 자신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면서 개략적인 탄압과 언론통제, 조작보도, 협박 등을 거침없이 가해왔다. 이러한 역공세에 주의를 기울임에 다소 부족하였던 사학과 북한 학술답사 개척 계획은 난관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면적인 사업

치출한 반응을 보이며, 방북공작을 거침없이 가해왔다. 이러한 점은 개략적인 내부 주체적응의 원에 의하여 대처해 낼 수 있었으나 고립적이고, 실무 기능주의적 사고로 인하여 많은 한계를 노출시켰다.

III. 오류와 과제

지난 한해동안 소박하나마 힘있게 준비, 실행하였던 사학과 방북추진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끼며 추진되었다. 특히 재정부분은 학생들만으로 충당해 내기에는 한계가 명백하였

조국의 새날 안아올 사학도의 통일외지

이 실패의 공간으로 오를 수 있는 시기의 반통일세력의 같은 만행은 단위와 차원에서 감당해 내기 힘들었고, 이는 이후 평가시 고립적 한계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의 교훈을 남겨주었다.

이와같은 한계와 오류 그리고 성공과 과학적 평가를 바탕으로 겨울방학중의 많은 고민과 수차례의 평가, 분석작업을 통하여 90년 제2기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 먼저, 제1기 사업의 성과와 폭넓게 알려지거나, 단위와의 고립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취지하

원화'가 힘차게 진군을 가지고 발족하였다. 내부적으로는 지난해의 사업에 대한 올바른 시각의 평가와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 그리고 더욱 대중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전체 학우와 대학원생, 교수간의 논의 공간확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지난해의 단위와 차원의 고립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기다양한 연대사업 그리고 전대협의 1천개 방북 추진과 연계하여 모범사례의 전파에 주력하고 있다.

강요성

< 사학 >

제2회 전국대학(원)생 논문현상공모

작은 품도 소중하라는 저희 국민은행은 고객에게 보다 나은 금융편의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학(원)생 여러분의 우수한 논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폐가와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논제: 다음중 택일

- 2000년대의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한 국민은행의 발전방향
- 금융자유화, 국제화에 따른 은행마케팅전략
- 경제발전을 위한 가계저축의 역할과 증대방안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당면과제와 육성방안
-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상금 및 시상

- 대상 (1명): 300만원과 상패
- 금상 (2명): 각 100만원과 상패
- 은상 (3명): 각 50만원과 상패
- 동상 (5명): 각 30만원과 상패
- ※ 응모자 전원에게 기념품 증정
- 시상: 시상일시와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함

유의사항

- 1) 논문제출시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명기하고 재학증명서 1부를 첨부할 것
- 2) 제출된 논문은 일절 반환하지 않음
- 3) 당선작의 저작권은 당행 소유임
- 4) 기타 사항은 논문현상담당자에게 문의바람 (전화 771-40, 교 25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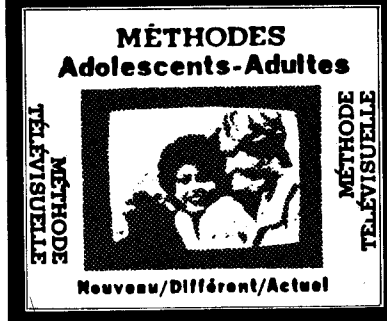
언제나 내집 같은
국민은행

프랑스어

- 7~8월 학기 개강
- 개강: '90. 7. 2 (월)
- 접수: '90. 6. 11 (월)부터

- 방학 특강만 개설 -

alliance française



알리앙스프랑세즈

- mauger I, II, sans fron. I, II, III
- archipel I, II, III, bonne route I
- avec plaisir, france act, VIDEO
- traduction, thème, 문학, 문화, 강독
- conversation libre, 시사예담

seoul-centre ☎ 755-4972, 5702 (중구)

nam-seoul ☎ 555-1125, 1126 (강남)

PUSAN: 622-3601 KWANGJU: 526-0189

TAEGU: 22-4630 DAEJON: 254-3478

alliance française
프랑스어 문화원

취직시험, 직장에서의 승진을 보장하는 '90년형 최신 TOEIC 시리즈!

TOEIC 800 대책시리즈

- 경향과 공략법 김명기 총 6권/4,000원
- WORD POWER대책 박일송 총 6권/4,000원
- IDIOM대책 윤창남 총 6권/4,000원

나머지 3권도 계속 발간됩니다.
● READING 대책 ● 문법/STRUCTURE 대책
● LISTENING 대책

대학원진학, 취직시험, 유학시험, 각종 고시 준비는 이것으로 끝!

TOEFL 600 전략시리즈

- 문법/STRUCTURE 전략 유기영 총 6권/4,000원
- WORD POWER전략 윤창남 총 6권/4,000원
- READING 전략 박일송 총 6권/4,000원
- IDIOM 전략 정명진 총 6권/4,000원

나머지 2권도 계속 발간됩니다.
● 경향과 공략법 ● LISTENING 전략

10년 영어공부를 단시일내에 해결해주는 희귀한 ELT교재!

영어신문·잡지를 재미있게 읽는 법
교실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英語
미국 英語 이어서 재미있다
나의 영어실력은? (Test Your English)

시사영어사가 독점 수입 공급하는 영어회화교재!

Spectrum: A Communicative Course in English
New English Course
Side by Side
Side by Side (2nd EDITION)